

왜 나는 사람들에게 예술을 소개하는가

한 점의 그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이었습니다.

1990 년, 파리였습니다.

도시의 한 갤러리에 들어선 순간, 한 점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고 그 옆에는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것은 정말 잠깐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지금까지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저는
예술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작품을 소장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분명히 저는
예술의 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그 그림을 샀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새로운 그림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작품 앞에 서 있을 때,
이성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는 그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느끼는 감각은
사람에게 ‘판단하는 힘’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술의 세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
사람과의 관계.
사회.
그리고 인생.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낄 것인가.

예술을 접함으로써
그 감각은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스키아라고 하면, 2017년
마에자와 유사쿠 씨가 그의 작품을 약 1억 2,300만 달러에 구입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림에는 분명
돈으로는 잴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예술에는 사람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 순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스키아의 작품을 보았을 때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 그의 작품은
세계 곳곳의 미술관에 소장되고,
경매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으며,
그의 명성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메시지가
세계로 전해집니다.

그 뒤에는
작가의 재능뿐만 아니라
작품을 믿어 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예술은
한 개인의 힘에서 시작하더라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 후쿠오카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아트페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오랫동안 느끼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예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사회와 세계와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밖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트페어가 필요했습니다.

아트페어는
예술을 사회에 열어 주고,
도시로 확장시키며,
세계와 연결합니다.

저에게 그것은
예술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사람.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의 저처럼,
누구에게나
예술의 문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곳이

그 입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도시에서

새로운 예술의 흐름이 태어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